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연구

장동수*

1. 서론

현대 신약 그리스어 비평본의 대명사인 『네스틀레 알란트의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e*) 28판(NA 28판)이 2012년에 출판되고,¹⁾ 곧 이어서(2014년) 이것과 본문을 공유하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The Greek New Testament*) 5판(UBS 5판)이 출판된 것은²⁾ 직전 판(모두 1993년)이 나온 지 이십 년 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UBS 5판)에서 중요한 수정과 첨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된다.³⁾ 첫째, 새로이 발견된 파피루스 117-127번이 비평장치에 첨가되었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포함하는 파피루스 127번은 베자 사본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 둘째, 문단 나누기와 철자법 등에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비평장치에 비평본의 본문과는 다른 이문을 채택한 현대 번역본들(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을 실었다. 넷째, 공동서신(야고보서, 베드로서신, 요한서신, 유다서)의 본문과 비평장치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대비평본(*Editio Critica Maior*, ECM)의⁴⁾ 정보를 NA 28판과 UBS 5판이 공유하기 때문에 UBS 5판에서는 이전 판과 이 공동서신의 본문에서 서른세 곳 그리고 비평장치에서 여러 곳에⁵⁾ 변

*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대학원 교수, 신약학. dschang@kbtus.ac.kr.

1) Barbara Aland, et al., *Novum Testamentum*, 28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2) Barbara Aland, et al., *The Greek New Testament*, 5th ed.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ies, 2014).

3) UBS 5판, 1^{*}-6^{*}; Florian Voss, "The Fifth Edition of the UBS *Greek New Testament*", *The Bible Translator* 65:2 (2014), 222-223 등을 참조.

4) B. Aland,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 Editio Critica Maior IV, The Catholic Letters*, 2nd rev. ed.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13).

5) 네 곳(벧전 4:16; 벧후 3:6; 요1 5:6; 유 15)에 새로운 이문 단위로 개설되고, 열한 이문 단위가

화가 생겨났다. 하지만 이중에서 이전 판(edition)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공동서신에서의 본문의 차이와 적용된 방법론의 역할이다.

흔히 CBGM이라는 약자로 불리는 ‘일관성에 기초한 계보적 방법’(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이 대비평본의 공동서신 본문 구축에 주도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방법의 개발자인 밍크(G. Mink)는 대비평본의 편집자들이 지금(NA 27판/UBS 4판)까지 견지해온 온건한 절충주의(reasoned eclecticism)의 원칙에 충실하였지만,⁶⁾ 그들은 편집 결정의 포괄적인 개관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CBGM을 활용하였다고 증언한다.⁷⁾ CBGM은 막대한 양의 소문자 사본(성구집, 교부인용문, 번역본들도 포함하여)을 조사하고자 하는 IGNTP(International Greek New Testament Project) 팀과 INTF (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의 목적을⁸⁾ 위하여 밍크 연구원이 캠브리지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들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ECM의 공동서신의 본문 구축에 적용되었다.⁹⁾

CBGM은 그 목적과 목표가 이문들의 계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증거

삭제되었으며, 몇몇 곳에서는 두 개의 이문 단위가 하나로 통합되거나 한 개의 이문 단위가 두 개의 이문 단위로 분리되었다.

- 6) ‘온건한 절충주의’(reasoned eclecticism)란 여러 이문들 가운데서 원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외적 판단기준(external criteria, 증거 사본의 연대, 질, 지리적 분포, 본문유형 등을 검토하기)을 강조하는 역사적-계보적(historical-genealogical) 방법과 내적 판단기준(internal criteria, 짧은 이문, 어려운 이문, 공관복음의 병행 절에서 상이한 이문, 다른 이문들의 출현을 설명해주는 이문 등이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의 필사상의 가능성과 저자의 문맥이나 어휘 문체, 신학과 사상, 섹터적 표현이나 코이네 그리스어 어법 등과 일치하는 이문이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의 내재적인 가능성을 살피기)을 강조하는 엄격한 절충주의(thoroughgoing eclecticism)를 절충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NA와 UBS의 편집자들이 견지해온 방법론이다: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116-125를 참조.
- 7) G. Mink, “Contamination, Coherence, and Coincidence in Textual Transmission: the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K. Wachtel and M. W. Holmes, eds., *The Textual Histo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Changing Views in Contemporary Research*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142-143.
- 8) Barbara Aland, “New Testament Research, Its Methods and Its Goals”, Stanley E. Porter and Mark J. Boda, eds., *Translating the New Testament: Text, Translation,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9), 16-23을 보라.
- 9) 밍크는 이 방법론에 대한 논문을 1990년대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였지만 가장 정제된 것으로는 G. Mink, “Contamination, Coherence, and Coincidence in Textual Transmission”, 141-206을 참조하라. 이 방법론을 찬동하며 실천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글로는 Klaus Wachtel,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A New Way to Reconstruct the Text of the Greek New Testament”, John S. Kloppenborg and Judith H. Newman, eds., *Editing the Bible: Assessing the Task Past and Presen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2), 123-138; Tommy Wasserman, “The Coherence Based Genealogical Method as a Tool for Explaining Textual Chang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Novum Testamentum* 57 (2015), 206-218 등을 보라.

사본들의 이문 정보를 전수 조사하려 했으나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지 못하여 아쉬웠던 콜웰(E. Colwell)의 계량 분석 방법(Quantitative Analysis, QA)과 방대한 자료의 계보 관계를 빨리 파악해보고자 개발한 위쓰(F. Wisse)와 맥레이놀즈(P. McReynolds)의 CPM (Claremont Profile Method)의 목적이나 목표와 흡사하며, 이러한 방법론들을 더 발전시킨 형태이다.¹⁰⁾ CBGM의 과정과 그 지향점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증거 사본들의 비교대조(collation)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각 증거 사본들에 나타나는 이문들의 선(ancestor, 조상)-후(descendant, 후손) 관계를 파악하여 각 이문 단위의 지역 계보도(local stemma)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더 정제하여 조상 사본의 수가 최소화된 최적의 하부 계보도(optimal substemma)를 창출해낸 다음, 그러한 최적의 하부 계보도들로 구성된 전체 계보도(global stemma)를 만들어내서 각각의 이문 단위와 각 책과 신약 전체의 ‘시작 본문’(Ausgangstext, initial text)을¹¹⁾ 구축하고, 더 나아가 본문전승의 개관(역사)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¹²⁾

이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들이 존재한다. 밍크는 우선, 본문이 전승된 처음 천 년간의 본문의 흐름(text flow)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잔틴 계열 증거사본들을 배제하지 않는 동시에 어떤 본문-유형(text-type)에 대한 선입관도 배제하고, 본문의 흐름을 주도한 사본의 필사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대본(exemplar)을 (계 22:18-19를 명심하면서) 충실하게 필사한 필사자이지 편집자가 아니며, 이문(variant 혹은 different reading)은 필사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본과 멀지 않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자료를 보고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¹³⁾ 증거 사본들 사이에 흐르는 본문의 흐름과 계보적 일관성(genealogical coherence)이 존재하고 이것은 마치 유전자 고리(DNA chains)와 같은 것이라고 전제한다.¹⁴⁾

CBGM이 ECM의 공동서신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ECM의 본문과 비평장치 정보를 공유하는 NA 28판과 UBS 5판의 공동서신에서 선행 판들과 차이

10) 이러한 방법론의 역사에 대한 개관은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104-111을 참조.

11) ‘시작 본문’(initial text)이란 신약의 저자가 직접 기록했던 원문(original text)은 아니고 그 원문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원문과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현존하는 모든 본문전승의 시작점에 있는 본문(archetype of the tradition)이라는 가설적인 개념인데, 구축된 본문(established text)은 이 ‘시작 본문’의 가설적인 구축을 의미한다. Barbara Aland, “New Testament Research, Its Methods and Its Goals”, 17; G. Mink, “Contamination, Coherence, and Coincidence in Textual Transmission”, 143 참조.

12) G. Mink, “Contamination, Coherence, and Coincidence in Textual Transmission”, 142, 151-155.

13) Ibid., 142-145.

14) Ibid., 143-144, 146.

가 나는 본문의 채택과 그에 따르는 비평장치의 변화를 이 방법론이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INTF와 IGNTP가 협업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욕적이고 획기적인 ECM 작업(2030년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완성하는 과업)에 이 방법이 여전히 주도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¹⁵⁾ 향후 CBGM에 대한 논란과 검증 작업은 신약성서학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슨(Bengt Alexanderson)같은 스웨덴의 고전학자는 CBGM의 통계 방식, 필사자의 역할을 포함한 여러 전제들, 기본 개념들, 결과물들에 이르기까지 그 허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 방법은 전혀 가치가 없든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¹⁶⁾라고 극단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영미권의 학자인 칼슨(Stephen C. Carson)은 CBGM은 비밀에 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법으로는 본문 전송의 역사를 구축할 수 없다는 의심과 회의를 동시에 드러낸다.¹⁷⁾ 이렇듯 학자들 간에 이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CBGM의 적실성을 본격적으로 따져보는 일은 현 단계에서는 다소 이른 감이 있고 또한 이 작업은 본고의 분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렇지만 UBS 5판의 공동서신에 나타난 본문의 차이가 CBGM을 적용한 결과물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선 UBS 5판에 채택된 본문의 변화들을 개관하고 또한 그 중에서 의미에 중요한 차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여섯 구절(벰전 4:16; 벰후 2:18; 3:10; 요1 5:10, 18; 유 5)을¹⁸⁾ 집중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CBGM이 적용된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그 적실성을 잠정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본문이 채택되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UBS 5판의 공동서신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개관

15) Peter M. Head, “Editio Critica Maior: An Introduction and Assessment”, *Tyndale Bulletin* 61:1 (2010), 147-148 참조.

16)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Old Manuscripts and Papyri, the New Genealogical Method (CBGM) and the Editio Critica Maior (ECM)*, *Humaniora* 48 (Göteborg: Kungl. Vetenskaps- och Vitterhets-Samhället, 2014), 3(인용문)과 58-117, 특히 115-117을 보라.

17) Stephen C. Carson, “The Text of Galatians and Its History”, Ph.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2012), 53-58; “Comments on the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TC: A Journal of Biblical Textual Criticism* 20 (2015), 1-2 등을 참조.

18) 참조, Florian Voss, “The Fifth Edition of the UBS *Greek New Testament*”, 226.

다음의 표, ‘UBS 5판에서 달라진 본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NA 28판 /UBS 5판에서 본문이 달라진 곳이 공동서신에서 서른넷(34) 혹은 서른셋(33)이다.¹⁹⁾ NA 28판에는 베드로전서 2:25(ἀλλ’ ← ἀλλά)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서른세 곳이 모두 비평장치에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만, UBS 5판의 경우에는 열세 곳에서만 비평장치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²⁰⁾ 이 서른 세 곳에서 이루어진 본문 변화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파피루스 사본이나 시내 사본(01)과 바티칸 사본(03)같은 소수의 우수한 초기 사본들이 지지하는 본문을 따르기도 하고(NA 27판과 UBS 4판까지의 경향성) 또 다른 경우에는 후대의 다수 본문 계열(Majority Text, NA 28판과 UBS 5판부터는 Byz, 즉 비잔틴 계열로 표기함)이 지지하는 본문을 따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²¹⁾ 이러한 서른세 곳의 본문변화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어순 변화, 생략, 첨가, 치환 혹은 철자법 및 문법 교정 등의 대략 네 가지 경우이다.

UBS 5판에서 달라진 본문들

(출처: UBS 5판, 2*-4*; NA 28판, 6*, 50*-51*)

	ECM/NA28/UBS5	NA27/UBS4
약 1:20	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	οὐκ ἐργάζεται
2:3	ἢ κάθου ἐκεῖ	ἐκεῖ ἢ κάθου
2:4	καὶ οὐ διεκρίθητε	οὐ διεκρίθητε
2:15	λειπόμενοι ὧσιν	λειπόμενοι
4:10	τοῦ κυρίου	κυρίου
벧전 1:6	λυπηθέντας	λυπηθέντες
1:16	생략	[ὅτι]
1:16	생략	[εἶμι]
2:5	생략	[τῶ]
4:16	μέρει	ὀνόματι
5:1	τοὺς	οὖν
5:9	생략	[τῶ]

19) NA 28판의 목록(참조, NA 28판의 서문, 6*과 50*-51*)에서는 벧전 2:25의 ἀλλὰ (NA27/UBS4)에서 ἀλλ’ (NA 28판)로 바뀐 것을 실고 있어서 서른네 군데였는데, UBS 5판(참조, UBS 5판의 서문, 2*-4*)에서는 이 구절을 뺐기 때문에 서른세 군데가 되었다. 이는 아마 단순한 철자법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UBS 5판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0) 약 2:3; 벧전 4:16; 5:10; 벧후 2:6, 11, 18, 20; 3:6, 10, 18; 요1 5:10, 18; 유 5.

21) J. K. Elliott, “A New Edition of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4 (2013), 56-58; 민경식,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 (한국어 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36 (2015), 192-193 등을 참조.

	5:10	생략	[Ἰησοῦ]
벧후	2:6	ἀσεβεῖν	ἀσεβέ[σ]ιν
	2:11	παρὰ κυρίῳ	παρὰ κυρίου
	2:15	καταλιπόντες	καταλείποντες
	2:18	ὄντως	ὀλίγως
	2:20	생략	[ἡμῶν]
	3:6	δι' ὄν	δι' ὦν
	3:10	οὐχ εὐρεθήσεται	εὐρεθήσεται
	3:16	ταῖς ἐπιστολαῖς	ἐπιστολαῖς
	3:16	στρεβλώσουσιν	στρεβλοῦσιν
	3:18	생략	[ἀμήν]
요1	1:7	생략	δὲ
	3:7	παιδία	τεκνία
	5:10	ἐν αὐτῷ	ἐν ἑαυτῷ
	5:18	ἑαυτόν	αὐτόν
요2	5	γράφων σοι καινήν	καινήν γράφων σοι
	12	ἧ πεπληρωμένη	πεπληρωμένη ἧ
요3	4	ἀληθεία	τῆ ἀληθεία
유	5	ἅπαξ πάντα ὅτι Ἰησοῦς	πάντα ὅτι [ὁ] κύριος ἅπαξ
	18	생략	[ὅτι]
	18	생략	[τοῦ]

2.1. 생략(12)

앞의 표에서 ‘생략’으로 표기된 열 군데 중에서 이전 판에서는 불확실한 본문이라고 여겨 괄호 속에 있던 어휘가 NA 28판/UBS 5판에서 생략된 곳이 아홉 곳(벧전 1:16[2곳]; 2:5; 5:9; 5:10; 벧후 2:20; 3:18; 유 18[2곳])이고, 요한1서 1:7에서는 NA 27판/UBS 4판의 본문에 있던 접속사(δὲ)가 생략되었다. 나머지 생략의 예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두세 곳이 더 있다. 요한3서 4절(ἀληθεία ← τῆ ἀληθεία)에서는 관사가 생략되었다. 베드로전서 5:1(τοὺς ← οὖν)에서는 접속사(οὖν)가 관사(τοὺς)로 치환된 예로 볼 수도 있지만, 접속사가 생략되고 관사가 첨가된 예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베드로후서 2:6(ἀσεβεῖν ← ἀσεβέ[σ]ιν)에서는 형용사(ἀσεβέσιν)에서 부정사(ἀσεβεῖν)로의 치환 혹은 문법적인 교정의 예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전 판에서 불확실하다고 여겨 괄호 속에 두었던 철자([σ])를 생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NA 28판/UBS 5판의 본문 생략의 경우에서 확실하게 비잔틴 계열의 증거

를 따라간 곳은 요한3서 4절과 베드로후서 2:20뿐이며(접속사나 철자의 생략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면 벵전 5:1; 벵후 2:6도 이에 해당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초기 우수한 증거들에는 없었고 비잔틴 계열에만 있었던 내용이 생략된 경우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수 본문 계열(즉, 비잔틴 계열)과 일치하는 경우는 네 곳(즉, 벵전 1:16[ὄτι]; 벵전 5:9; 벵후 2:20; 요3 4. 벵전 5:1과 벵후 2:6을 이 범주에 포함한다면 여섯 곳)이나 된다.²²⁾ 이러한 현상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지만, CBGM의 적용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2. 첨가(4)

NA 28판/UBS 5판의 본문에서 첨가를 통하여 심각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는 야고보서 2:4(καὶ οὐ διεκρίθητε ← οὐ διεκρίθητε), 15절(λειπόμενοι ὥσιν ← λειπόμενοι); 4:10(τοῦ κυρίου ← κυρίου), 베드로후서 3:16(ταῖς ἐπιστολαῖς ← ἐπιστολαῖς) 등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각각은 접속사(καὶ=“그러면”, 귀결절의 시작)를 첨가하여 평서문을 부정어(οὐ)가 포함되어 긍정의 대답이 기대되는 수사적 의문문으로 만드는 기능(약 2:4), 분사(λειπόμενοι)에 동사(ὥσιν)를 첨가하여 완곡어법(periphrastic construction)을 형성하여 에둘러 말하는 기능(약 2:15), 관사(τοῦ나 ταῖς 등)를 첨가하여 대상/인물을 지정하는 기능(약 4:10; 벵후 3:16) 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 2:4의 경우는 밉크가 설명하는 것처럼 CBGM의 적용의 결과로서,²³⁾ 초기 사본들의 지지를 받는

22) ECM 그리고 NA 28판과 UBS 5판에서부터 기준에 사용하던 다수 본문(Majority Text, *M*)이라는 명칭을 비잔틴 계열(Byzantine, *Byz*)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을 감안한다면, 공동서신에서 달라진 서른세 곳의 본문을 NA의 선행 판들(27판과 26판 등)이나 Zane C. Hodges and Arthur L. Farstad, eds.,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Second Edit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5); Michael W. Holmes, ed., *The Greek New Testament*, SBL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Maurice A., Robinson and William G. Pierpont, eds.,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Byzantine Textform* (Southborough: Chilton, 2005) 등의 해당 본문 및 비평장치와 비교해보는 것은 좋은 참고가 된다.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NA 28판과 UBS 5판에서 본문이 달라진 서른세 곳 중에서 열아홉 곳(약 1:20; 2:4, 15; 4:10; 벵전 1:16상; 4:16; 5:1, 9; 벵후 2:6, 11, 15, 18, 20; 3:16상; 요1 5:10, 18; 요2 5, 12; 요3 4)에서 비잔틴 계열(혹은 다수 본문 계열)이 지지하는 이문이 시작 본문으로 정해졌다.

23) 밉크는 CBGM의 결과로 구성된 이 이문 단위의 지역 계보도를 제시하면서(G. Mink, “Contamination, Coherence, and Coincidence in Textual Transmission”, 160) καὶ가 첨가된 것은 그리스어 어법이 아닌 썸어적인 표현이며 이 이문이 더 어려운 이문(*lectio difficilior*)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문들(καὶ가 없거나, 부정어가 없거나 철자가 다른 부정어가 있는 이문

이문들을 제치고 사본 P(025, 9세기)와 비잔틴 계열의 후기 사본들이 지지하는 제4순위의 이문을 시작 본문으로 택한 점이다. 그리고 부정어(οὐχ)가 첨가되어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린 베드로후서 3:10(οὐχ εὐρεθήσεται ← εὐρεθήσεται)은 가장 논란이 되는 이문 단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2.3. 어순 변화(4)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한 의미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어순 변화의 예는 야고보서 2:3(ἡ κάθου ἐκεῖ ← ἐκεῖ ἡ κάθου), 요한2서 5절(γράφω σοι καινήν ← καινήν γράφω σοι)과 12절(ἡ πεπληρωμένη ← πεπληρωμένη ἡ)이다. 요한2서의 두 구절은 모두 비잔틴 계열의 증거를 따라가고 있다.

이 중에서 야고보서 2:3의 경우만 UBS 5판의 비평장치에 실려 있는 이문인데, 시작 본문으로 선택된 본문을 바티칸 사본과 소수의 소문자 사본/번역본들만이 지지하기 때문에 편집자들의 의견일치는 C등급에 머물고 있다. 이는 UBS 4판의 편집자들이 ἐκεῖ ἡ κάθου가 원문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이문들(UBS 5판의 ἡ κάθου ἐκεῖ를 포함하여)의 발생을 설명해주는 이문이라고 B등급을 주면서 추정된 결정과는 사뭇 다르다.²⁴⁾

그리고 굳이 어순변화의 범주에 넣는다면, 유다서 5절(ἅπαξ πάντα ὅτι Ἰησοῦς ← πάντα ὅτι [ὁ] κύριος ἅπαξ)이 해당되는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생략([ὁ]), 어순변화(ἅπαξ의 위치), 치환(Ἰησοῦς ← κύριος)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문 단위로 독법의 수가 서른을 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논란이 많아서 아래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다.

들, 그리고 καὶ와 부정어가 다 없는 이문)의 발생을 설명해주는 이문이라고 주장한다: G. Mink, "Problems of a Highly Contaminated Tradition: the New Testament: Stemmata of Variants as a Source of a Genealogy for Witnesses", P. van Reenen, A. den Hollander and M. van Mulken eds., *Studies in Stemmatology II* (Amsterdam: John Benjamins, 2004), 61. 그러나 알렉산더슨은 밍크의 이러한 주장은 바르지 않다고 비평하면서, 오히려 καὶ가 없고 부정어만 있었던 이문이 원문이었고 차후에 καὶ가 붙거나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인식되어 부정어조차도 떨어져 나간 이문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77-78; 137 등을 참조.

24) B.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2판,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590; Roge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471. 주석가들도 UBS 4판의 편집자들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Martin Dibelius, *Jam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5), 124, 131; Ralph P. Martin, *Jame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8), 56-57; Scot McKnight, *The Letter of Jame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1), 174 등을 참조.

2.4. 치환 혹은 철자 및 문법 교정(13)

의미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는 치환 혹은 철자 및 문법 교정의 예로서는 야고보서 1:20(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 ← οὐκ ἐργάζεται = ‘단순동사’에서 ‘합성동사’로),²⁵⁾ 베드로후서 2:6(ἀσβεῖν ← ἀσβέ[σ]ιν = ‘형용사’에서 ‘부정사’로)과²⁶⁾ 11절(παρὰ κυρίῳ ← παρὰ κυρίου = 명사의 ‘탈격’에서 ‘처격’으로)과 15절(καταλιπόντες ← καταλείποντες = ‘현재 분사’에서 ‘부정과거 분사’로), 그리고 3:16(στρεβλώσουσιν ← στρεβλοῦσιν = ‘현재 직설법’에서 ‘미래 직설법’으로), 요한1서 3:7(παιδιά ← τεκνία = “자녀들”에서 “아이들”로), 베드로전서 1:6(λυπηθέντας ← λυπηθέντες = 분사의 ‘주격’에서 ‘대격’으로), 5:1(τοὺς ← οὖν = ‘접속사’에서 ‘관사’로),²⁷⁾ 베드로후서 3:6(δι’ ὧν ← δι’ ᾧν = 관계대명사의 ‘복수 속격’에서 ‘단수 대격’으로) 등으로 도합 아홉 곳 정도이다.

이들 중에서 의미는 그다지 변하지 않지만 특이한 곳은 베드로후서 2:11과 3:6이다. 베드로후서 2:11에서는 편집자들이 소수의 초기 사본들(P72 5307 등)과 번역본들만이 지지하는 독법인 παρὰ κυρίου(“주님으로부터/앞에서”, UBS 4판의 본문)를 떠나서 우수한 초기 사본들(⋈ B C)과 비잔틴 계열의 증거들이 동시에 지지하는 독법인 παρὰ κυρίῳ(“주님 곁에서”, UBS 5판의 본문)를 채택한 경우인데,²⁸⁾ 그리스어 어법의 측면에서나²⁹⁾ 증거사본들에 대한 외적 판단기준의 측면에서 모두 더 나은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는 사뭇 대조적으로 베드로후서 3:6에서는 UBS 5판의 편집자들이 초기 우수한 사본들과 후기 비잔틴 계열 증거들이 모두 지지하는 독법(δι’ ᾧν)을 버리

25) 이 경우 또한 비잔틴 계열을 따른 전형적인 예이다(민경식,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 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2-193).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를 단순한 필사상의 가능성(철자법)의 문제로 보고 어려운 이문이 본문으로 선택된 예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A. J. Forte, “Observations on the 28th Revised Edition of Nestle-Aland’s Novum Testamentum Graece”, *Biblica* 94 (2013), 276-278.

26) 다수 사본 증거들은 부정사(ἀσβεῖν)를 지지하고 P72와 바티칸 사본 등의 소수 증거들은 형용사(ἀσβέσιν)를 지지하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해도 형용사를 더 나은 이문으로 보는 이도 있다: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138.

27)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경우는 언뜻 보기에는 접속사(οὖν)가 관사(τοὺς)로 치환된 예이지만, 접속사의 생략과 관사의 첨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예라고 볼 수 있다.

28) B.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614를 참조.

29) 전치사 παρὰ의 탈격(여격) 지배가 그리스어 어법에 더 잘 어울린다. 전치사 παρὰ가 탈격(원천이나 출신을 의미함)을 지배할 때와 처격(사물보다는 사람에게 제한하여 사용됨)을 지배할 때의 미미한 차이에 대하여는,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614-615를 참조.

고 극히 소수의 후기 증거만(9세기 사본인 P와 10세기 사본인 1175 등과 소수의 번역본)이 지지하는 독법(δὲ ὅν)을 본문으로 택했다.³⁰⁾ 그래서인지 편집자들은 이 이문 단위에 낮은 등급인 C를 주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곳(벵후 2:11; 3:6)의 경우도 CBGM의 적용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치환의 경우에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예들이 네 구절이나 되는데, 이는 단순한 문법교정이나 철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16(μέρει ← ὀνόματι = “그 부분으로” ← “그 이름으로”), 베드로후서 2:18(ὄντως ← ὀλίγως = “확실히” ← “간신히”), 요한1서 5:10(ἐν αὐτῷ ← ἐν ἑαυτῷ = “그 안에” ← “자신 안에”), 5:18(ἑαυτόν ← αὐτόν = “그 자신을” ← “그를”)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여섯 구절에 대한 분석

앞에서 언급한대로 의미가 달라지는 본문 변화가 발생한 여섯 구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개관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경우들은 치환의 예들이 네 곳(벵전 4:16; 벵후 2:18; 요1 5:10, 18), 첨가의 경우가 한 곳(벵후 3:10), 그리고 어순과 치환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한 곳(유 5)이다.

3.1. 베드로전서 4:16(μέρει ← ὀνόματι)

UBS 4판에서는 베드로전서 4:16의 마지막 어구(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ούτῳ=“그 이름으로”)에서 어떤 이문 단위나 비평장치의 정보도 없었고, 우리는 다만 NA 27판의 본문 비평장치에서 UBS 5판의 비평장치에 실린 증거사본들의 정보를 간략한 형태로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UBS 5판의 편집자들은 이곳에서 돌연 우수한 초기 증거들(P72 & A B 등과 초기 번역본과 교부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오래된 증거로는 9세기 사본 P(025)뿐인 후기 비잔틴 계열 증거들의 독법(ἐν τῷ μέρει τούτῳ=“그 사안으로”)을 B등급을 주면서까지 따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CBGM의 옹호자인 와셔맨(Tommy Wasserman)

30) 복수(δὲ ὅν)보다 단수(δὲ ὄν)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동시에 더 어려운 독법이기 때문에 이 독법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139 참조.

은 본 이문 단위에 대한 CBGM의 적용결과를 기초로 해석하기를, 외적 기준이 강한 이문(ὀνόματι)은 계보적 일관성(genealogical coherence)이 약하고 오히려 외적 기준이 약한 이문(μέρει)이 계보적 일관성이 아주 좋은데, 이는 필사자들이 긴밀한 관계에 있는 본문을 참조하는 CBGM의 전제를 어기고 독립적으로 우연히(coincidence) 전자(ὀνόματι)를 끌어들었기(CBGM의 용어대로 contamination) 때문이라 주장한다.³¹⁾ 그래서 그는 이 이문 단위에서 외적 기준이 약한 이문(μέρει)이 더 어려운 이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문들 특히 ὀνόματι를 발생시킨 이문이라고 주장한다.³²⁾ UBS 5판(실제로는 ECM)의 편집자들이 선택한 독법(μέρει)은 그리스어 어법에도 맞고 더 어려운 독법(lectio difficilior)을 선호하여 내린 더 나은 선택이지 CBGM의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³³⁾ 편집자들로 하여금 이 이문 단위에서 ὀνόματι가 아닌 μέρει를 시작 본문으로 추정하게 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CBGM의 결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2. 베드로후서 2:18(ὄντως ← ὀλίγως)

베드로후서 2:18의 경우도 초기 우수한 증거 사본들 소수(P72 \aleph^2 A B 등과 초기 번역본과 교부들)가 지지하는 본문(ὀλίγως)에서 주로 대다수의 비잔틴 계열 사본들이(시내 사본과 에프라임 사본도 있지만) 지지하는 본문(ὄντως)으로의 전환이다.³⁴⁾ 문맥상 강한 대조가 되려면 ὀλίγως(“간신히”)보다는 ὄντως(“확실히”)가 더 잘 어울리고 또한 후대의 필사자들의 의문(거짓 교사들을 “확실히” 피해 나온 사람들이 왜 다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가?)을 제기하면서 ὄντως(“확실히”)에서 ὀλίγως(“간신히”)로 치환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ὄντως(“확실히”)가 원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UBS 5판의 선택을 더 나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⁵⁾ 어찌되었든 이 경우 또한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CBGM의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31) Tommy Wasserman, “Chapter Twenty-One. Criteria for Evaluating Readings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Bart D. Ehrman and Michael W. Holmes, e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Essays on the Status Quaestionis*, Second Edition (Leiden: Brill, 2014), 599-603.

32) Ibid., 603.

33)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93.

34) UBS 4판에서는 ὀλίγως (“간신히”)가 A등급으로 대세이고 ὄντως (“확실히”)는 이차적인 이문으로 여겨졌다: B.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616; Roger L. Omanson, *A Textual Guide*, 499; Richard J. Bauckham, *Jude, 2 Peter*,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3), 271, 274-275 등을 참조.

35)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138.

3.3. 베드로후서 3:10(οὐχ εὐρεθήσεται ← εὐρεθήσεται)

베드로후서 3:10의 경우는, 이미 UBS4의 비평장치 해설에서 “현존하는 증거들에서는 어느 것도 원문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탄식이 있었을 정도로,³⁶⁾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이문 단위이다.³⁷⁾ UBS 5판의 편집자들이 채택한 본문(οὐχ εὐρεθήσεται=“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즉 “없어질 것이다”³⁸⁾)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우수한 초기 사본들(P72의 εὐρεθήσεται λυόμενα=“풀어져 드러나리라” 혹은 κ B의 εὐρεθήσεται=“드러나리라” 혹은 C의 ἀφανισθήσονται=“사라질 것이다”)도 아니고 비잔틴 계열(A와 Byz의 κατακαήσεται=“다 타버릴 것이다”)도 아니며, 놀랍게도 부정어(οὐχ)를 삽입했을, 그러나 현존하지 않는 그리스어 사본을 저본(底本)으로 번역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수의 번역본(시리아어와 콥트어)일 뿐이다. 물론 이 번역본들의 독법의 실질적인 의미는 대다수의 증거들인 C를 포함한 비잔틴 계열 증거들이 지지하는 독법(κατακαήσεται=“다 타버릴 것이다”)과 같지만,³⁹⁾ 이 번역본들의 독법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리스어 사본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 선택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 본문을 증거하는 그리스어 사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번역본 소수만이 증거하는 본문을 추정하여(conjecture), UBS 4판(D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C등급이 부여되면서 채택된 UBS 5판의 본문은 결국 CBGM의 적용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⁴⁰⁾

3.4. 요한1서 5:10(ἐν αὐτῷ ← ἐν ἑαυτῷ)

UBS 5판의 요한1서 5:10의 본문이 재귀대명사 “자신 안에”(ἐν ἑαυτῷ)에서 인칭대명사 “그 안에”(ἐν αὐτῷ)로 바뀌었다(등급은 C). 두 독법의 사본적 지지는 거의 균등하다. UBS 4판의 다수의 편집자들이 B 등급을 부과하면서 선택하였던 본문인 전자(ἐαυτῷ)는 사본 κ Ψ 등과 일군의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의 지지를 받고, UBS 4판의 소수의 편집자들이 선택하였던 후자

36) 그래서 UBS 4판의 이 이문 단위에 대한 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인 D였으며 사본들로부터 도출된 대안적인 독법들이 열두 가지나 열거된다: B.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617; Roger L. Omanson, *A Textual Guide*, 500-501 참조..

37)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139.

38) 흥미롭게도 『공동번역개정』의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는 정확히 UBS 5판의 본문을 따르는 번역이다.

39)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139.

40) Peter M. Head, “Editio Critica Maior: An Introduction and Assessment”, 145.

(αὐτῷ)는 사본 A B P(025) 등과 또 다른 군의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⁴¹⁾ 이 경우에도 편집자들의 결정에 적용된 방법론이 당연히 일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편집자들이 약속한 본문 주석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한 어느 정도 CBGM이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⁴²⁾ 다만 이 경우에서도 베드로전서 4:16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9세기 사본 P(025)의 무게가 돋보일 뿐이다.

3.5. 요한1서 5:18(ἐαυτόν ← αὐτόν)

바로 앞의 경우(요1 5:10)와는 상반되게 요한1서 5:18에서 인칭대명사 “그를”(αὐτόν)이 재귀대명사 “그 자신을”(ἐαυτόν)로 바뀐 것은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같은 구절 앞부분에 나오는 ὁ γεγεννημένος(γεννάω의 현재완료 수동태 남성 단수 분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ὁ γεννηθείς(γεννάω의 부정과거 수동태 남성 단수 분사)를 예수로 해석할 것인가 혹은 두 어휘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⁴³⁾ UBS 4판의 편집자들은 전자의 해석을 지지하면서 사본 A* B 등 소수의 증거들이 지지하는 αὐτόν을 택한 반면(등급은 B),⁴⁴⁾ UBS 5판의 편집자들은 \aleph 과 A^c 및 대다수의 비잔틴 계열의 증거들이 지지하는 ἐαυτόν을 본문으로 채택함으로써(등급은 C) 결과적으로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는 베드로전서 2:10하의 예(... οἱ οὐκ ἠλεημένοι νῦν δὲ ἐλεηθέντες.=“...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와⁴⁵⁾ 같이 다른 형태의 두 가지 수동태 분사, γεγεννημένος(현재완료)와 γεννηθείς(부정과거)의 차이를 단지 스타일상의 문제로 보고 동일한 의미 즉,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였다는 증거이므로, 이 해석을 따르는 이들은 UBS 5판의 본문을 확

41)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628; Roger L. Omanson, *A Textual Guide*, 513.

42) J. K. Elliott, “A New Edition of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58.

43) 유수한 주석가들이 이 구절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UBS 4판의 편집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전자의 해석을 선호한다: 대표적으로 Stephen S. Smalley, *1, 2, 3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4), 302-303; Georg Strecker, *The Johannine Letter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208-209; Judith M. Lieu, *I, II, & III John*,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229-231. 그러나 브라운(Brown)은 여러 견해들을 설득력 있게 비평하면서 후자의 해석을 선호한다: R.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2), 619-622.

44)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629; Roger L. Omanson, *A Textual Guide*, 514.

45) ἠλεημένοι와 ἐλεηθέντες는 각각 동일한 동사 ἐλέω의 ‘현재완료 수동태 분사’와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인데 동일한 실체를 언급한다.

실히 더 나은 결정으로 보기도 한다.⁴⁶⁾

3.6. 유다서 5절(ὕμᾱς ἅπαξ πάντα ὅτι Ἰησοῦς ← [ὕμᾱς] πάντα ὅτι [ὁ] κύριος ἅπαξ)

본 이문 단위는 ECM의 한두 개 증거 사본들이 지지하는 독법의 수가 서른이 넘고 NA 28판/UBS 5판의 비평장치에 수록된 독법은 열다섯이 넘는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이다.⁴⁷⁾ 엄밀하게 말하면 이곳에는 세 개 이상의 이문 단위, 즉 생략([ὁ]와 [ὕμᾱς]), 어순 변화(ἅπαξ의 위치),⁴⁸⁾ 치환들(κύριος 혹은 Ἰησοῦς 혹은 θεός 혹은 κύριος Ἰησοῦς 혹은 θεός Χριστός와 πάντα 혹은 τοῦτο) 등이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 수많은 경우의 수를 창출해내면서 극도의 혼돈을 보인다.⁴⁹⁾ 결과적으로 UBS 5판에서는, 시내 사본의 지지를 받던 UBS 4판의 본문([ὕμᾱς] πάντα ὅτι [ὁ] κύριος ἅπαξ)(D 등급)이 아니라 바티칸 사본이 홀로 지지하는 본문(ὕμᾱς ἅπαξ πάντα ὅτι Ἰησοῦς)이 택함을 받았다(C 등급).

아마도 이는 편집자들이 독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CBGM의 계보적 일관성(genealogical coherence)에 관한 정보에 의존하여 결정한 결과로 보인다.⁵⁰⁾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NA 27판의 비평장치에 수록되었던 이문 중에서 오로지 방법론 때문에 시작 본문으로 등극하게 되어 본문이 급진적으로 바뀐 예일 뿐이다.⁵¹⁾ 하지만 단지 바티칸 사본 하나만이 지지하는 이문을 시작 본문으로 결정한 결과에서 우리는 CBGM의 전제대로 본문의 흐름과 계보적인 일관성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CBGM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공동서신의 공통적인 본문의

46)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93, 99-100.

47) B.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636-637; Roger L. Omanson, *A Textual Guide*, 520-521; Jerome H. Neyrey, *2 Peter, Jude*,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3), 61-63; Richard J. Bauckham, *Jude, 2 Peter*, 43, 49 등을 참조.

48) ἅπαξ의 위치 이동은 신학적인 문제(한 번 구원하신 주님이 그 백성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가?)와 연관이 있다: Scott J. Hafemann, “Chapter 15. Salvation in Jude 5 and the Argument of 2 Peter 1:3-11”, Karl-Wilhelm Niebuhr and Robert W. Wall, eds., *The Catholic Epistles & Apostolic Tradition: A New Perspective on James to Jude*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9), 332-334 참조.

49)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100, 140-141.

50) Peter M. Head, “Editio Critica Maior: An Introduction and Assessment”, 145.

51) A. J. Forte, “Observations on the 28th Revised Edition of Nestle-Aland’s Novum Testamentum Graece”, 280.

흐름의 방향과는 다른 역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⁵²⁾ 이 이문 단위에서의 편집자들의 시작 본문을 결정할 편집의 동인이나 CBGM의 구체적인 활약이 더 궁금해진다.

본 단락의 논의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의미가 달라진 공동서신의 여섯 곳의 이문 단위에서, 초기 우수한 증거들을 제치고 후대의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이나 심지어 번역본들만이 증거하는 본문(벤험 3:10의 경우는 본문의 의미가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이 증거하는 본문과 동일함)이 최종 본문으로 선택된 경우가 더 많다(벤험 4:16; 벤험 2:18; 3:10; 요1 5:10, 18). 그리고 바티칸 사본 하나만을 의지한 유다서 5절의 본문변화는 계보적 일관성도 그 방향성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로 보인다.

4. 결론: 요약과 평가

본 논문은 UBS 5판에서 직전 판과 본문이 달라진 곳 서른세 곳을 개관하고 특별히 의미가 달라진 여섯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UBS 5판의 개정 상황에 대하여 개관하고 이어서 이 비평본이 본문과 비평장치 정보를 공유하는 ECM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방법론인 CBGM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달라진 서른세 곳의 본문들을 살펴보는 두 종류의 작업에서 CBGM의 영향이나 역할을 추적해보는 방식을 취했다. 이 논문에서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평가할 수 있겠다.

첫째, UBS 5판에서 본문이 달라진 서른세 곳 중에서 열아홉 곳(약 1:20; 2:4, 15; 4:10; 벤험 1:16상; 4:16; 5:1, 9; 벤험 2:6, 11, 15, 18, 20; 3:16상; 요1 5:10, 18; 요2 5, 12; 요3 4)에서 비잔틴 계열(혹은 다수 본문 계열)이 지지하는 이문이 시작 본문으로 정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CBGM이 전제하였던 비잔틴 계열 증거들을 배제하지도 않고 기존의 본문 유형을 고수하지도 않는다는 이상이 실현된 증거일 수는 있으나 UBS 5판의 선행 판들에서 적용되었던 편집자들의 원칙(외적 판단기준이나 본문 유형의 원칙 등)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UBS 4판의 비평장치 해설인 『그리스어 본문 주석』에서 2차적인 독법 혹은 후대의 변경일 것으로 판단하는 독법들(특히, 벤험 2:18; 3:10; 요1 5:10, 18)을 UBS 5판의 본문으로 선택함으로써 지금까지 편집자들이 배격하였던 독법을, 이제는 다수 본문

52)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100 참조.

(M)이라는 명칭을 피하고 비잔틴 계열 증거(Byz)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본의 무게를 달아보는 편집자들의 이전의 원칙이 혁신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ECM의 공동서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방법론(CBGM)을 적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변화들에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한 점도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이 방법론의 적실성에 대한 학문적인 검증과 그 결과물에 대하여 약속한 전문적인 본문 주석이 요구된다.

둘째, UBS 5판의 공동서신에서 이루어진 본문 변화들이 모두 비잔틴 계열 증거들의 이문이 시작 본문으로 채택되는 쪽으로만 가지는 않았다. 우수한 소수의 초기 사본의 이문 쪽으로 간 경우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우수한 초기 사본도 비잔틴 계열도 아닌 소수의 후기 사본의 이문으로 간 경우도 있다. 야고보서 2:3이 바티칸 사본과 소수의 소문자 사본과 번역본들만의 지지를 받는 이문이 본문으로 택함을 받은 경우이고, 심지어 유다서 5절은 단지 바티칸 사본만이 지지하는 이문이 본문으로 택함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다른 방향성 혹은 경향성의 예도 있다. 9세기 사본인 P(025)에 대한 선호가 돋보이는데, 베드로후서 3:6과 베드로전서 4:16(요한1서 5:10에서는 부분적으로)의 본문 결정에서 초기 우수한 사본과 비교적 초기의 비잔틴 계열 증거들을 모두 버리고 P(025)의 이문이 시작 본문으로 발굴되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3:10의 본문은 우수한 초기 사본들도 비잔틴 계열의 증거들도 아닌 그리고 그리스어 사본도 아닌 소수의 번역본의 이문을 근거로 시작 본문을 추정한 경우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문은 한 책(베드로전서/후서) 혹은 한 묶음 집(공동서신)에서 본문의 흐름의 방향성이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개관에서 논의한 경우 중에서 세 곳(약 2:3; 벰전 1:6; 벰후 2:6)에서는 이전 본문(NA 27판/UBS 4판)이 낮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논의한 여섯 구절 중에서 적어도 네 곳(벰전 4:16; 벰후 2:18; 요1 5:10, 18)은 ECM/UBS 5판의 본문이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이라고 확신하는 한 학자의 견해가 있는데,⁵³⁾ 본인도 이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CBGM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다행스럽게도 ECM의 편집자들이 본문을 결정할 때 ‘온건한 절충주의’(reasoned eclecticism)를 고수하였기 때문이라는 동일한 학자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⁵⁴⁾ 왜냐하면 현 단계에서 이

53) Ibid., 141.

54) Bengt Alexanderson,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117. 밍크도, ECM의 편집자들이 온건

러한 모든 현상이 CBGM의 적용의 결과가 전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BS 5판의 달라진 본문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적용된 방법론인 CBGM에 대한 학문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결론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집중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한다.

<주제어>(Keywords)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UBS 5판), 공동서신, 본문의 변경, 본문비평장치의 개정, 대비평본, CBGM.

United Bible Societies' The Greek New Testament 5th Edition (UBS 5th), Catholic Letters, Textual Changes, Revision of the Textual Critical Apparatus, Editio Critica Maior (ECM), CBGM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투고 일자: 2016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한 절충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였지만 편집 결정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CBGM을 활용하였다고 말한다: G. Mink, "Contamination, Coherence, and Coincidence in Textual Transmission", 142-143.

<참고문헌>(References)

- 매츠거, B.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2판,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 민경식,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36 (2015), 187-205.
-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 Aland, Barbara, et al., *Novum Testamentum*, 26th., 27th., 28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1991, 1993, 2012.
- Aland, Barbara, “New Testament Research, Its Methods and Its Goals”, Stanley E. Porter and Mark J. Boda, eds., *Translating the New Testament: Text, Translation,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9, 13-26.
- Aland, B.,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 Editio Critica Maior IV, The Catholic Letters*, 2nd rev. ed.,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13.
- Aland, Barbara, et al., *The Greek New Testament*, 5th. ed.,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ies, 2014.
- Alexanderson, Bengt, *Problems in the New Testament: Old Manuscripts and Papyri, the New Genealogical Method (CBGM) and the Editio Critica Maior (ECM)*, Humaniora 48, Göteborg: Kungl. Vetenskaps- och Vitterhets-Samhället, 2014.
- Bauckham, Richard J., *Jude, 2 Peter*,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3.
- Brown, R. E., *The Epistles of John*,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2.
- Carson, Stephen C., “The Text of Galatians and Its History”, Ph.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2012.
- Carson, Stephen C., “Comments on the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TC: A Journal of Biblical Textual Criticism* 20 (2015), 1-2.
- Dibelius, Martin, *Jam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5.
- Elliott, J. K., “A New Edition of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4 (2013), 47-65.
- Forte, A. J., “Observations on the 28th Revised Edition of Nestle-Aland’s *Novum Testamentum Graece*”, *Biblica* 94 (2013), 268-292.
- Hafemann, Scott J., “Chapter 15. Salvation in Jude 5 and the Argument of 2

- Peter 1:3-11”, Karl-Wilhelm Niebuhr and Robert W. Wall, eds., *The Catholic Epistles & Apostolic Tradition: A New Perspective on James to Jude*,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9, 331-342.
- Head, Peter M., “Editio Critica Maior: An Introduction and Assessment”, *Tyndale Bulletin* 61:1 (2010), 131-152.
- Hodges, Zane C. and Farstad, Arthur 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Second Edit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5.
- Holmes, Michael W., ed., *The Greek New Testament*, SBL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 Lieu, Judith M., *I, II, & III John*,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Martin, Ralph P., *Jame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8.
- McKnight, Scot, *The Letter of Jame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1.
- Mink, G., “Problems of a Highly Contaminated Tradition: the New Testament: Stemmata of Variants as a Source of a Genealogy for Witnesses”, P. van Reenen, A. den Hollander and M. van Mulken eds., *Studies in Stemmatology II*, Amsterdam: John Benjamins, 2004, 13-85.
- Mink, G., “Contamination, Coherence, and Coincidence in Textual Transmission: the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K. Wachtel and M. W. Holmes, eds., *The Textual Histo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Changing Views in Contemporary Research*,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141-206.
- Neyrey, Jerome H., *2 Peter, Jude*,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3.
- Omanson, Roger L.,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 Robinson, Maurice A. and Pierpont, William G., eds.,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Byzantine Textform*, Southborough: Chilton, 2005.

- Smalley, Stephen S., *1, 2, 3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4.
- Strecker, Georg, *The Johannine Letter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Trobisch, David., *A User's Guide to the Nestle-Aland 28 Greek New Testamen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 Voss, Florian, "The Fifth Edition of the UBS *Greek New Testament*", *The Bible Translator* 65:2 (2014), 222-230.
- Wachtel, Klaus,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A New Way to Reconstruct the Text of the Greek New Testament", John S. Kloppenborg and Judith H. Newman, eds., *Editing the Bible: Assessing the Task Past and Presen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2, 123-138.
- Wasserman, Tommy, "Chapter Twenty-One. Criteria for Evaluating Readings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Bart D. Ehrman and Michael W. Holmes, e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Essays on the Status Quaestionis*, Second Edition, Leiden: Brill, 2014, 580-612.
- Wasserman, Tommy, "The Coherence Based Genealogical Method as a Tool for Explaining Textual Chang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Novum Testamentum* 57 (2015), 206-218.

<Abstract>

**An Investigation on Textual Changes of
the *UBS Greek New Testament, 5th Edition***

Dong-Soo Cha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extual changes in the Catholic Letters of the United Bible Societies' *The Greek New Testament, 5th Edition* (UBS 5th). There are 33 readings in the text of the UBS 5th edition as well as the Nestle-Aland 28th (NA 28th) edition which differ (sometimes significantly) from those of the UBS 4th/NA 27th editions of 1993. This is because the Editio Critica Maior (ECM) representing a new level of scientific research (CBGM,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on the text and offering a text newly established on this basis is already available, and the text of the Catholic Letters was taken from the ECM, and apparatus was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is text.

But we are not in a position to completely understand why particular readings have been chosen without additional material supporting the textual decisions made in the ECM (and especially a textual commentary). Sometimes this can be discerned by new evidence or other discussions; some general tendencies can be discerned b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CM and the NA 27th/ 26th editions or the UBS 4th/3rd edi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vides a short introduction to the CBGM, a critical overview of those 33 textual changes, and some detailed analysis on several passages that merit closer attention. An analysis of some of these variants is done in order to see how and why several new readings have been adopted in this new edition.

This paper provides three results from the analysis, and critical evaluation on them. First, it is not easy to discern any general tendency among these variants because sometimes the new readings follow early witnesses like Sinaiticus or only Vaticanus (Jud 5) or even only early versions (without any Greek manuscripts) in 2 Peter 3:10 while at other points, they follow the later Majority

(Byzantine from this edition) text or even only some later Minuscles like P (025) in 1 Peter 4:16.

Second, new readings of the UBS 5th edition at several passages like 1 Peter 4:16; 2 Peter 2:18; 1 John 5:10 and 5:18 can surely be better, and in some cases like James 2:3; 1 Peter 1:6; and 2 Peter 2:6, old readings of the UBS 4th edition may be better. This not only signifies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BGM but also reflects the result which is not from the editors' reasoned eclecticism bu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BGM.

Third, since the CBGM emboldens editors of the ECM to go against the bulk of the manuscript evidence at significant moments, textual choices of the ECM/UBS 5th edition can only be understood in light of the CBGM. Therefore, detailed textual commentary on textual decisions as well as further intensive studies on the relevance of this method should follow.